



광주 올 최고기온...이글거리는 아스팔트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울돌이 가장높은 34.2도를 기록한 1일 지열로 달아올라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길을 오토바이가 지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광주·전남지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페루 교육정보화 지원

전남교육청, 양해각서

전남도교육청이 중남미의 제3세계 국가인 페루의 교육정보화를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장만체 교육감이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중남미의 페루를 방문해 페루 교육부와 교육정보화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페루 교육부와 교육용 컴퓨터 무상 지원과 교원 초청 연수 등 교육정보화 협력 및 상호 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장 교육감은 또 페루 찬차마요시청을 방문해 각급 학교에 컴퓨터 150대를 무상 지원하고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이더넷 인프라 지원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찬차마요시는 지난 2011년 한국인 최초로 정흥원 씨가 시장에 당선된 곳이다.

장 교육감은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오시코시대학을 방문해 교직원 장기 국외연수에 대해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 전략적 투자국인 말레이시아와 교육정보화 교류에 관한 MOU를 체결, 현재까지 컴퓨터 952대를 지원했다.

오늘 날씨
휴가철 음식조심
구름 많은 가운데 비 떨어지는 곳 있었다.
광주 비 25/32°C, 구름많음 25/32°C, 목포 구름많음 25/30°C, 여수 구름많음 25/32°C, 나주 구름많음 26/33°C, 완도 구름많음 25/33°C, 구례 비 25/33°C, 강진 구름많음 26/31°C, 해남 구름많음 26/33°C, 장흥 구름많음 26/33°C, 순천 비 24/32°C, 영광 구름많음 24/31°C, 진도 구름많음 26/31°C, 전주 비 25/33°C, 군산 비 25/31°C, 남원 비 24/33°C, 옥산도 구름많음 24/29°C

5·18왜곡 처벌 대상자 선별

검찰, '일베' 회원 등 10명 신원 파악...법리 검토 착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하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지검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고소·고발된 당사자들의 신원을 거의 확인,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일 광주지검 공안부(이근수 부장 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5·18 관련 기관과 피해자들에 의해 고소·고발된 10명 가운데 상당수의 신원과 주거지 등을 파악했다. 이들 10명은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 악성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 6명, 채널 A '김광현의 탐방평평'

출연자 3명, TV 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출연자 1명이다.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게시물 중 2건은 1명이 중복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 수사대상은 모두 9명이다. 이메일 아이디를 입력해 회원 가입하는 일베 회원 중 국내 포털사이트 계정 이용자는 신원이 확인됐지만 외국 계정을 쓰는 회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3~4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 가운데는 17살만 학생도 있었으며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원이 확인된 누리꾼과 탈북자 등을 불러 게시물 작성, 종편 프로그램에서의 진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소인 측 33명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낸 상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범죄혐의를 면밀하게 파악해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법원 "정치활동 교수에 정직 1개월 부당"

KDI 유종일 교수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 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 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해 2월 휴가를 내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에 앞서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그는 연구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 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휴가지 폭죽 안전사고 매년 증가

화상·안구손상 등 24건

한국소비자원은 2010~2012년 접수된 폭죽 관련 안전사고가 2010년 49건, 2011년 46건, 2012년 61건으로 증가 추세를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24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 증가했다. 사고는 바닷가(36.8%)와 여가·문화놀이 시설(29.9%)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상해 유형별로 화상(56.1%)이 가장 많았고 안구·시력 손상(16.1%), 체내 이물질 침투(12.2%), 필립·베임·열상(7.2%) 등이 뒤따랐다. 연령대별로는 10대(25.6%)와 10세 미만(25.0%) 등 어린이와 청소년 사고가 절반을 넘어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물놀이 많은 여름철 귓속염증 환자 급증

광주 외이염 환자 5.4% 늘어

날씨가 습하고 물놀이가 많은 8월에 귓속 염증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6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외이도염 환자는 지난 2007년 4만1972명에서 2012년 4만4222명으로 5.4% 늘었다. 전남은 같은 기간 4만9344명에서 5만7754명으로 17% 급증했다. 특히 휴가철 물놀이가 많은 8월에 18.8%나 발병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외이도 상황을 관찰하지도 않고 면봉·귀개 등으로 무리하게 자극을 주면 고막이 찢어지거나 외이도 폐쇄, 중이염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

차영 前민주당 대변인 "조희준 아들 낳았다"

조용기 목사 장남 상대 친자 확인 소송 제기

차영(여·51·사진)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77) 목사의 장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씨는 조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등 소송을 전남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인지청구는 혼인하지 않은 사람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차씨는 자신의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 과거 양육비 중 1억 원과 위자료 1억 원,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700만 원을 각각 조씨에게 청구했다. 차씨는 소장에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후 후 그와 동거하



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이어 "지난 2월 조용기 목사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응서를 구한 데 이어 '장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던 조씨가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광주문화방송 아나운서를 지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 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작년 서울에서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연합뉴스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YONAMJA
메뉴: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7,900, 볼골레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10,800, 핫 스테이크 ₩10,800, 허니고르곤올라 피자 ₩12,900

전여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팬션/별장/요양시설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18평(28실) 6840만원, 28평(26실) 1억 640만원, 56평(1실) 2억 1280만원
대출가능금액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 1억원 가능